

# 12

## 서양 미술의 모험

- 1 서양 미술의 지역적·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주요 미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3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류 공동체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반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그리고 기독교 사상을 자양분으로 하여 성장한 서양 미술은 시대별·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하며 세계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서양 미술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미술을 일컫지만 그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혁신과 변화를 일구어 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대, 지역, 사회의 배경을 짚어 보며 서양 미술의 모험을 살펴보자.

### 선사 시대 수수께끼 속 미술

문자가 없었던 선사 시대에 인류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구석기 시대 인류는 깊은 동굴에 벽화를 그려 사냥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동물의 뼈나 돌에 조각을 새겨 풍요를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농경으로 정착 생활이 가능해진 신석기 시대에는 거석 구조물을 세워 종교 의식을 거행하거나 태양의 이동을 관측하였다. 선사 시대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그토록 생생한 벽화와 웅장한 구조물을 남길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 라스코 동굴 벽화(기원전 1만 5000~1만 3000년경/구석기 시대/들소의 방)



▲ 스톤헨지(석회암/높이 4.5m, 지름 29.5m/기원전 2000년경/신석기 시대)



◀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석회암/높이 11.1cm/구석기 시대)

###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미술 고대 문명의 탄생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고대 문명을 이룩하였다. 태양을 숭배하고 영혼 불멸을 믿었던 이집트에서는 수천 년 동안 전제 왕조가 지속되었고 파라오의 불멸을 기원하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미라 등 무덤을 채우는 미술이 발전하였다. 한편 현재의 중동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메르에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는 수많은 왕국이 출현하였으며 전투와 사냥 장면을 묘사한 부조, 법전 조각과 신전 건축이 융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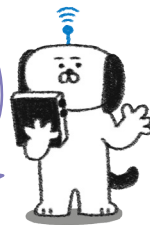


▲ 피라미드와 �핑크스 (이집트 기차/기원전 2500~2470년경)



▲ 투탕카멘왕의 장례 마스크 (에나멜을 상감한 금과 보석/ 54×39.3×49cm/ 기원전 134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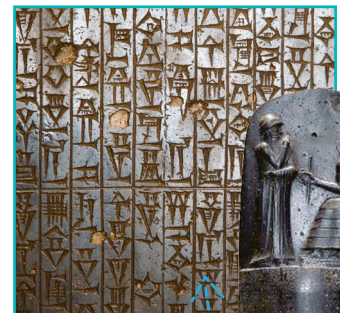
이집트인은 얼굴과 발은 옆에서 본 모습을, 눈과 어깨는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려 조합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보는 시점과 상관없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새 사냥을 하는 네바문(네바문 무덤 벽화/높이 81cm/기원전 1390년경)



▲ 아슈르나시르팔 2세의 사자 사냥 (부분/방해석/88.6×223.5cm/기원전 883~859년)



▶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석판과 췌기 문자(높이 213cm/기원전 1760년경)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은 췌기 문자로 법전을 새겨 인류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을 남겼다.

##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 서양 문화의 뿌리

서양 문화의 직접적인 뿌리인 고대 그리스 미술은 인간과 자연을 탐구하는 철학, 과학, 신화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수학적 비례와 조화를 중시한 그리스인은 인간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는 서양 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고전주의 양식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는 지중해는 물론이고 유럽과 영국,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 미술과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공공 건축물과 기념비, 사실적 초상 조각 등 실용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헤라클레스의 왼쪽 발을 보십시오!  
이집트 그림과 다르게 보는 사람의 시점에 맞추어 발이 정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인은 이렇게 대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 라오콘 군상  
(대리석/높이 244cm/  
기원전 150~50년경/  
그리스 말 헬레니즘 시기)



▲ 헤르메스와 어린 디오니소스(대리석/높이 213cm/기원전 4세기/그리스)



▲ 선조의 두상을 들고 있는 로마 귀족  
(대리석/높이 165cm/기원전 1세기/로마)



▲ 헤라클레스가 그려진 암포라  
(테라코타 도기/높이 47.3cm/  
기원전 490~480년경/그리스)



▲ 파르테논 신전(대리석/13.7×69.5×30.9m/기원전 447년 완공/그리스 아테네) 수직 기둥인 지주에 수평 돌보인 상인방을 올려 축조한 직육면체 형태의 신전이다.



▲ 콜로세움(석재, 콘크리트/높이 48m, 지름 188m, 둘레 527m/80년 완공/로마) 세 개의 층 각각에 아치 80개를 배치하여 축조한 원형 경기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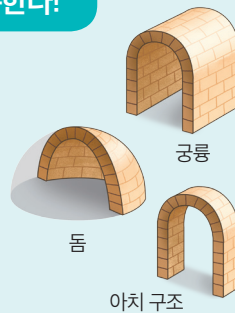


알고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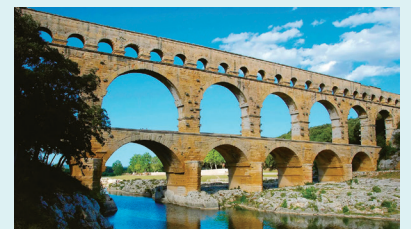
### 로마 제국의 놀라운 건축 공학-‘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건축 공학은 고대 로마가 서양 문명에 남긴 커다란 선물 가운데 하나였다. 실용 문화를 발전시킨 로마인은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동시에 경기장, 대욕장 등 공공 건축물과 도로, 수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건설하였다. 광대한 제국 곳곳의 도로가 로마로 이어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혁신적인 로마 건축의 핵심은 콘크리트와 아치 구조였다. 로마인은 석회 시멘트에 화산암 덩어리를 섞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로마식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또 고대 그리스에는 없었던 아치 구조를 개발하여 궁륭이나 돔 천장으로 획기적인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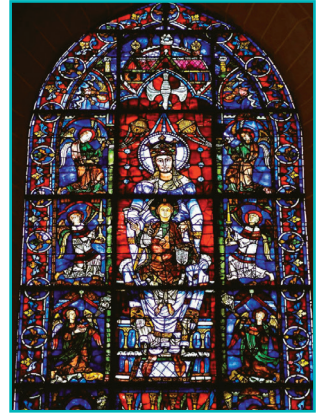
▲ 아치 구조: 썩기 모양의 돌을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 구조. 궁륭이나 돔으로 확장할 수 있다.



▲ 가르 수로 다리(석재, 콘크리트/높이 48.7m, 최장 부분의 길이 360m/1세기 중엽/프랑스 남부 남지방)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3층 다리이다. 윗부분은 물을 실어 나르는 수로 역할을 하였다. 로마인은 아치 구조를 사용하여 획기적으로 길고 튼튼한 교량을 건설했다.

## 중세 미술 신을 향한 종교 미술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15세기 중엽까지 1000년에 가까운 기간이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교가 생활과 예술의 모든 영역을 지배함에 따라 종교적 가르침을 담은 건축과 미술이 융성하였다. 특히 중세 대성당은 종교 예배를 진행하는 장엄한 십자가 형태의 건축물이자 조각이나 스테인드글라스로 문맹자에게 성경 내용을 가르치는 종합 예술에 속하였다. 대표적인 중세 건축 양식으로는 돔과 모자이크 장식이 뛰어난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양식, 작은 창과 두꺼운 벽으로 육중한 느낌을 주는 로마네스크 양식, 스테인드글라스와 뾰족한 첨탑으로 수직성을 강조한 고딕 양식이 있다.



▲ **하기야 소피아**(성소피아 성당/532~537년경/튀르키예 이스탄불/비잔틴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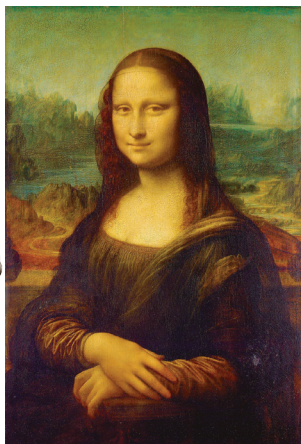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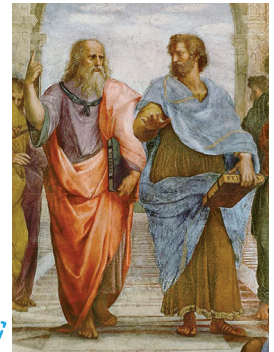
▲ **피사 대성당**(1063~1272년/이탈리아 피사/로마네스크 양식)과 **종탑**(1173~1327년) 대성당에 딸린 종탑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피사의 사탑으로 널리 알려졌다.



▲ **(아래)샤르트르 대성당**(1194~1260년/프랑스 샤르트르/고딕 양식)과 **(위)성당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1180~1225년)

## 15~16세기 르네상스 미술 고대의 부활과 인문주의적 문화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지닌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의 고대 문화가 부흥하면서 인문주의 문화가 융성한 시기였다. 15세기 초 피렌체에서 시작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는 중세의 신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을 탐구하는 미술이 발전하였다. 특히 해부학과 원근법을 개발하여 인간의 신체와 자연, 건축 공간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 북유럽에서는 자연 관찰을 토대로 하여 사실적인 세부 묘사가 두드러지는 회화가 주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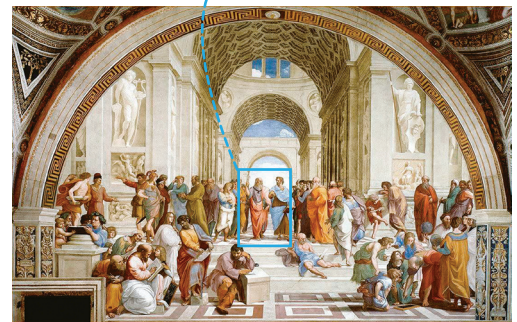


▲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이탈리아/1452~1519) **모나리자**(목판에 유채/77×53cm/1503~1506년)

▲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이탈리아/1475~1564) **다비드**(대리석/높이 517cm/1501~1504년)



▲ **반에이크**(Van Eyck, Jan/플랑드르(벨기에)/1390?~1441)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목판에 유채/82.2×60cm/1434년) 그림 속 인물의 결혼 증서로 그려진 작품이다. 이상화하지 않은 사실적 묘사와 종교적 상징성에서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da Urbino/이탈리아/1483~1520) **아테네 학당**(프레스코화/500×770cm/1510~1511년) 기하학에 기반을 둔 투시 원근법을 활용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담았다. 고대의 철학과 문화가 부활한 르네상스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추구한 인문주의 가치를 잘 보여 준다.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어. 이들의 손짓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



## 17~18세기 바로크 미술과 로코코 미술 절대 왕정과 귀족 사회 문화

바로크 미술은 17세기 절대 왕정 시대에 유럽 전역을 품미했던 미술 사조이다. 강렬한 명암 대비와 생생한 묘사로 감동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양식이 특징이다. 종교 개혁에 맞선 로마 교황청의 반종교 개혁을 위해 시작된 바로크 미술은 프랑스, 에스파냐, 플랑드르로 확산되어 극적이면서도 웅장한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다. 바로크 양식과 달리 우아하고 장식적인 로코코 미술은 18세기 프랑스와 중부 유럽의 귀족 사회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 루벤스(Rubens, Peter Paul/벨기에/1577~1640) **십자가를 세움**(목판에 유채/462×341cm /1610년/제단화의 일부) 극적이고 역동적인 바로크 미술의 대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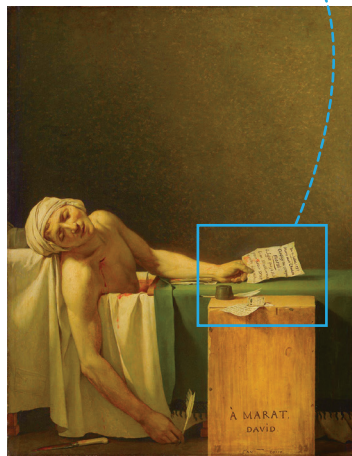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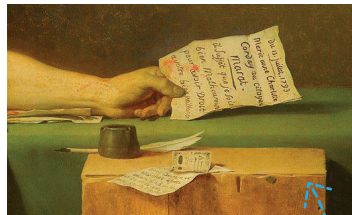


▲ 프라고나르(Fragonard, Jean-Honoré /프랑스/1732~1806) **그네**(캔버스에 유채 /84×65cm/1767년) 로코코 미술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 베르니니, 조반니 (Bernini, Gian Lorenzo/ 이탈리아/1598~1680) **다비드**( 대리석/ 높이 170cm/ 1623~1624년)

바로크 미술인 베르니니의 <다비드>는 르네상스 미술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와 어떤 점이 다를까?



### 신고전주의 이성적 질서와 계몽주의의 원리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고전주의 미술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로코코 미술을 비판하고 이성적 질서와 계몽주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다비드와 그로는 프랑스 혁명의 영웅이나 정치적 사건을 명료하게 구성한 고전주의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 다비드(David, Jacques-Louis/프랑스/1748~1825) **마라의 죽음**(캔버스에 유채/165×128cm/1793년) 프랑스 혁명의 급진주의를 대표했던 마라는 피부병 때문에 목욕탕에서 업무를 보던 중 암살당했다. 다비드는 마라의 모습을 성스러운 순교자처럼 묘사하였다.

▲ 그로(Gros, Antoine-Jean/프랑스/1771~1835) **자파의 페스트 격리소를 방문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캔버스에 유채/532×720cm/1804년)



알고  
가기

###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개성 넘치는 미술 문화가 융성했던 이유

가톨릭 왕국 에스파냐에서 독립한 네덜란드는 17세기에 다른 유럽 국가의 웅장한 바로크 양식과 구별되는 개성 있는 미술 문화가 발전하였다. 유독 네덜란드에서 개성 넘치는 미술 문화가 융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개신교가 지배적인 공화국이었던 네덜란드에서는 강력한 왕실이나 가톨릭 교회와 같은 전통적인 후원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해양 무역과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중산 계층이 미술품 수집에 열성적이어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 판매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 등의 각 분야에서 수많은 전문 화가가 개성 있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렘브란트, 페르메이르 등은 이 시기에 일상 주제를 독창적 예술로 표현한 네덜란드의 대표 거장이다.



▲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 van Rijn/네덜란드/1606~1669) **야경대**(캔버스에 유채/363×437cm/1642년)

◀ 페르메이르(Vermeer, Johannes/네덜란드/1632~1675)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캔버스에 유채/44.5×39cm /1665년경)

## 19세기 근대 미술

### 낭만주의 감정과 열정의 표현

19세기 초 낭만주의 화가들은 엄격한 이성보다는 순수한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성행한 낭만주의 미술은 격정적 주제나 경이로운 자연을 강렬한 색채와 극적 구성으로 표현하였다.



▶ **들라크루아**(Delacroix, Ferdinand Victor Eugène/프랑스/1798~1863)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캔버스에 유채/260×325cm/1830년)



▲ **터너**(Turner, Joseph Mallord William/영국/1775~1851) **노예선**(캔버스에 유채/90.8×121.9cm/1840년) 터너는 죽어 가는 노예들을 폭풍우 치는 바다에 내버려뒀던 비인간적인 노예 상선에 얽힌 실제 사건을 격렬한 필치와 색채로 표현하였다.

격정과 열정이 느껴지는 그림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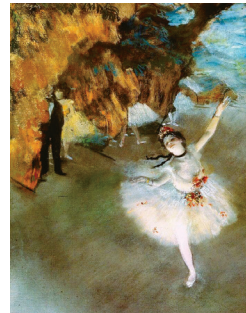
###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 순간적인 빛의 아름다움



▲ **밀레**(Millet, Jean-François/프랑스/1814~1875) **이삭 줍는 여인들**(캔버스에 유채/83.82×111.76cm/1857년)



▲ **모네**(Monet, Claude/프랑스/1840~1926) **파리술을 든 여인**(캔버스에 유채/100×81cm/1875년) 모네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바람 부는 언덕에서 있는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빠른 필치로 그렸다.



▲ **드가**(Degas, Edgar/프랑스/1834~1917) **스타 무용수**(종이에 파스텔/60×44cm/1878년)



◀ **쿠르베**(Courbet, Jean Désire Gustave/프랑스/1819~1877) **돌 깨는 사람들**(캔버스에 유채/165×257cm/1849년)

19세기 중반,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계층의 차이가 심화하고 근대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문화가 융성했다. 사실주의 미술은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반기를 들고 사회 현실과 실제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 사실주의 대표 작가인 쿠르베와 밀레는 노동자와 농민의 고된 삶을 소박하면서도 영웅적으로 표현하였다. 작업실을 벗어나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 인상주의 화가들은 명암법과 견고한 구성을 버리고 스냅 사진처럼 순간에 포착되는 인상을 빠르게 그려 내었다. 특히 모네, 드가, 르누아르 등은 순간적인 인상을 밝은 색채와 빠른 필치로 표현했다.

### 신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순간을 넘어 과학적 세계와 내면의 표현으로

신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는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는 인상주의를 넘어서고자 했다. 쇠라는 색채학과 광학을 기반으로 점묘법과 기하학적 구성의 신인상주의 회화를 남겼다. 세잔, 반 고흐, 고갱으로 대표되는 후기 인상주의는 내면의 감정과 자연의 구조를 담아내고자 했다. 세잔은 형태와 공간의 구조를 독자적으로 재구성하였고, 반 고흐는 내적인 감정을 강렬한 붓질과 색채로 표출했으며, 고갱은 유럽 문명을 벗어난 원주민의 순수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 **쇠라**(Seurat, Georges-Pierre/프랑스/1859~1891) **서커스**(캔버스에 유채/186×152cm/1891년)



◀ **고갱**(Gauguin, Eugène Henri Paul/프랑스/1848~1903) **이아 오라나 마리아(아메 마리아)**(캔버스에 유채/113.7×87.7cm/1891년)

▶ **반 고흐**(van Gogh, Vincent/네덜란드/1853~1890) **까마귀가 나는 밀밭**(캔버스에 유채/50.5×103cm/1890년)



▼ **세잔**(Cézanne, Paul/프랑스/1839~1906) **커튼이 있는 정물**(캔버스에 유채/55×74cm/1895년)



## 20세기 현대 미술

### 표현주의, 야수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현대 미술

20세기 현대 미술은 색채와 형태를 해방하며 등장하였다. 독일에서 출현한 표현주의는 현대 문명을 향한 비판과 내면의 갈등을 주관적인 색채와 왜곡된 형태로 표현하였다. 프랑스의 마티스가 주도한 야수주의는 원색을 사용하여 장식적·평면적 회화를 선보였다. 에스파냐의 피카소가 브라크와 함께 파리에서 시작한 입체주의는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형태와 공간을 다시 조합하여 전통적인 명암법과 원근법을 파괴하였다. 보초니, 발라 등 이탈리아 미래주의 미술가는 기계 문명이 가진 힘과 도시의 속도감을 찬양하며 시간 속에 펼쳐지는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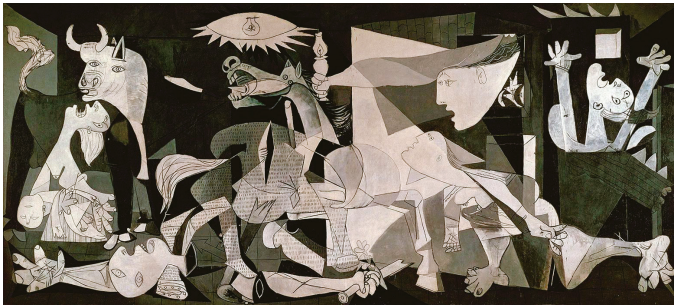


◀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1869~1954)  
붉은색의 조화(캔버스에 유채/180×220cm/1908년)

◀◀ 키르히너(Kirchner, Ernst Ludwig/독일/1880~1938)  
드레스덴의 거리(캔버스에 유채/150.5×200.4cm/19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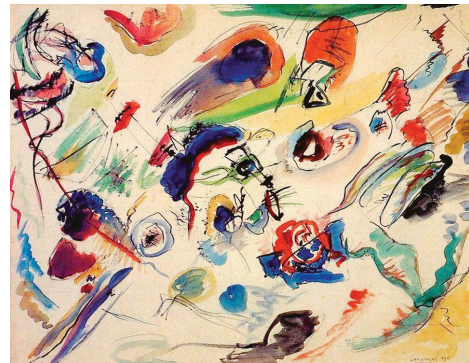
▲ 보초니  
(Boccioni, Umberto/이탈리아/1882~1916)  
공간에서 연속성을 보여 주는 특이한 형태  
(청동/88.5×111.2×40cm/1913년)



◀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좌) 블라르의 초상(캔버스에 유채/93×65cm/1910년)  
(우) 게르니카(캔버스에 유채/3,493×7,766cm/193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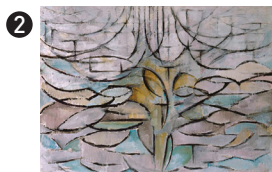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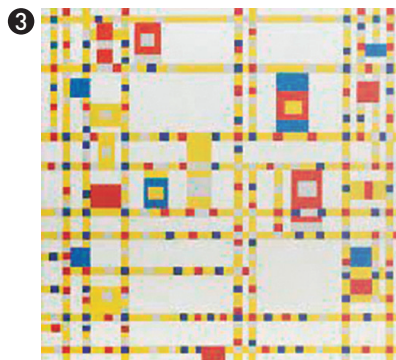
### 추상 미술의 탄생 본질을 담은 순수 조형의 세계

20세기 전반 유럽에서는 보이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점, 선, 면, 색채 등 순수한 조형 요소만을 사용하여 예술가의 정신 세계나 자연의 본질 원리를 표현하는 추상 미술이 탄생하였다. 몬드리안은 보이는 세계를 수평선, 수직선, 주요 색으로 단순하게 표현한 기하학적 추상 회화를 선보였다. 반면 칸딘스키는 부드럽고 즉흥적인 선, 풍부한 색채, 비사실적 형상을 사용하여 서정적인 추상 회화를 남겼다. 브라쿠시는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와 재료의 질감이나 양감만으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는 추상 조각의 세계를 개척하였다.



▲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프랑스/1866~1944) 무제(최초의 추상 수채화)(종이에 연필, 수채, 잉크/49.6×64.8cm/1910년)

▶ 브라쿠시(Brâncuși, Constantin/루마니아→프랑스/1876~1957)  
공간의 새(대리석/높이 144cm/1923년)



◀ 몬드리안(Mondrian, Piet Cornelis/네덜란드/1872~1944) ① 회색 나무(캔버스에 유채/79.7×109cm/1911년) ② 꽃피는 사과나무(캔버스에 유채/79×108cm/1912년) ③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캔버스에 유채/127×127cm/1942~1943년)  
몬드리안은 대상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쳐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만을 사용하는 추상에 도달했다.



## 다다와 초현실주의 무의식의 세계를 미술로

제1차 세계 대전 중 유럽에서 출현한 다다는 기존 문화의 전통을 강하게 비판하며 레디메이드와 같은 도전적인 미술을 시도했다. 이를 이어받은 초현실주의 미술은 무의식의 세계를 환상적으로 표현하거나 낯설고 기이한 사물을 제시하여 인간의 이성에 질문을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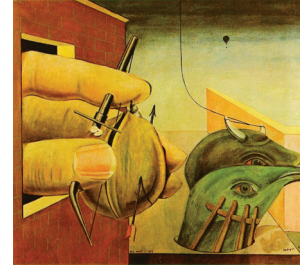
▶ 뒤샹(Duchamp, Marcel/프랑스→미국/1887~1968) **샘**(레디메이드/높이 63cm/1917년 원작/1964년 재제작)



이건 소변기야!  
어떻게 이런 물건이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을까?



▲ 달리(Dalí, Salvador/에스파냐/1904~1989) **해변의 얼굴과 과일 접시의 환영**(캔버스에 유채/114.8×143.8cm/1938년)



▲ 에른스트(Ernst, Max/독일→프랑스/1891~1976) **오이디푸스 대왕**(캔버스에 유채/93×102cm/1932년)

◀ 브라우네르(Brauner, Victor/루마니아→프랑스/1903~1966) **누드 테이블**(나무, 박제한 누대의 일부/54×57×28.5cm/1939~1947년)

## 추상 표현주의와 앵포르멜, 팝 아트와 미니멀 아트

### 제2차 세계 대전 후 인간의 고뇌와 고독한 군중



▲ 폴록(Pollock, Jackson/미국/1912~1956) **가을 리듬**(캔버스에 에나멜 페인트/266.7×525.8cm/1956년) 폴록은 혁신적인 뿌리기 기법을 사용하여 혼돈과 질서가 절묘하게 결합된 새로운 전면 회화를 개척했다.



▲ 포트리외(Fautrier, Jean/프랑스/1898~1964) **인질의 머리, No.1**(종이에 혼합 재료/34.9×27.3cm/1944년)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의 대표 추상 표현주의 화가 폴록은 거대한 캔버스에 즉흥적인 뿌리거나 거친 화면으로 인간의 고뇌를 표현하였고 미국의 회화를 세계적인 미술로 급부상시켰다.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 포트리외, 뒤뷔페 등의 앵포르멜 화가들은 표면을 거칠게 짓이겨 전쟁의 충격과 상흔을 담았다. 한편 1960년대 미국에서 성행한 팝 아트와 미니멀 아트는 20세기 후반 대중문화와 산업 사회의 획일화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었다. 팝 아트가 유명 영화배우의 사진이나 만화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미니멀 아트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벽돌 같은 산업 재료를 반복하는 단순한 형식을 취했다.



◀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매릴린 먼로**(캔버스에 실크 스크린/91.5×91.5cm/1967년)

▶ 저드(Judd, Donald/미국/1928~1994) **무제**(황동, 형광 플렉시 글라스, 강철 받침대/295.9×61×68.6cm/1969년) 박스 형태의 기본 요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배치한 대표 미니멀 아트 작품이다.

## 대지 미술, 개념 미술, 행위 미술

### 미술관을 넘어 자연과 환경으로, 제작을 넘어 개념과 행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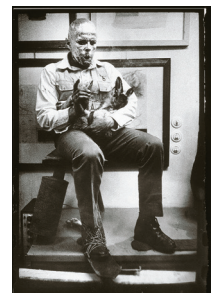
1970년대 이후 현대 미술은 대지 미술, 개념 미술, 행위 미술 등 전통적인 재료나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을 전개하였다. 자연 미술, 환경 미술이라고도 불리는 대지 미술은 번개, 바다, 낙엽 등 자연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였고 전시 공간 또한 자연이나 공공 환경으로 옮겨 놓았다. 개념 미술과 행위 미술은 작품의 형식 자체보다 작업 과정에 깔린 생각, 행위를 강조하였다.



▲ 드마리아(De Maria, Walter Joseph/미국/1935~2013) **번개 치는 들관**(스테인리스강 기둥 400개/1977년/미국 뉴멕시코)



▲ 크루거(Kruger, Barbara/미국/1945~)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실크 스크린/304.8×304.8cm/1987년)



▲ 보이스(Beuys, Joseph/독일/1921~1986) **죽은 토끼에게 그림 설명하기**(퍼포먼스/1965년)

## 전통 매체와 뉴 미디어의 공존 **경계 없는 20세기 말의 미술**

20세기 말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등 첨단 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뉴 미디어 아트나 바이오 아트와 같은 혁신적인 미술이 전개되었다. 한편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통 영역에서도 새로운 예술을 시도하는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 비올라(Viola, Bill/미국/1951~) **교차**(두 채널 비디오 설치/10분 57초/1996년) 물과 불을 경험하는 장면을 특수 효과로 촬영한 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생명과 소멸, 고통과 소생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 리히터(Richter, Gerhard/독일/1932~) **바다 풍경**(캔버스에 유채/290×290cm/1998년)

▶ 카츠(Kac, Eduardo/브라질-미국/1962~) **알바, GFP 토끼**(살아 있는 토끼/2000년) 카츠는 과학자들과 협업하여 백색증 토끼의 수정란에 '녹색 형광 단백질(GFP)'을 주입하여 파란색 조명에서 형광 녹색 빛이 나는 토끼 '알바'를 만들었다. 그는 창조된 삶을 존중하고 양육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 쿤스(Koons, Jeff/미국/1955~) **풍선 강아지**(스테인리스강, 투명 칼라 코팅/320×380×120cm/1994~2000년)



### 팝업 카드로 만든 '우리가 뽑은 시대별 미술 대상'

서양 미술의 역사 중 한 시대를 골라 당시 사회상을 가장 잘 담아낸 작품이나 작가를 선정하여 '이 시대의 미술 대상'을 수여하면 어떨까. 작품의 의미와 시대 배경을 시각화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팝업 카드를 만들어 발표해 보자.

#### 표현 재료

4절 색지, 색연필, 사인펜, 연필, 칼, 자, 양면테이프

- 1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화가 한 명을 선택하여 약력, 사조, 작품, 작업 특징, 대표작을 찾아 정리한다.
- 2 팝업 카드 구성물 모양을 만들고 조립한다.
- 3 팝업 카드 안에 탐색한 작가와 관련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대표작을 직접 그려서 붙인다.
- 4 완성한 팝업 카드를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눈다.



▲ 조아현(학생 작품) **꿈속을 거니는 화가, 마그리트**(종이에 혼합 재료/21×14cm)



- 서양 미술의 시대적·지역적·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 서양 미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 미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류 공동체의 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가?

영혼은 늘 문을 열어둔 채  
황홀한 경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디킨슨 -



## 인류세의 위험을 알리는 경종: 생태와 환경 보존에 동참하다

인류세란 인류가 자연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어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어 버린 오늘날의 지질 시대를 가리킨다. 인류세는 공식적인 지질학 개념은 아니지만 현재의 지질 시대인 충적세가 인간 때문에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오늘날 미술가들은 지구 온난화, 폐기물 배출, 환경 파괴 등을 작품 주제로 다루며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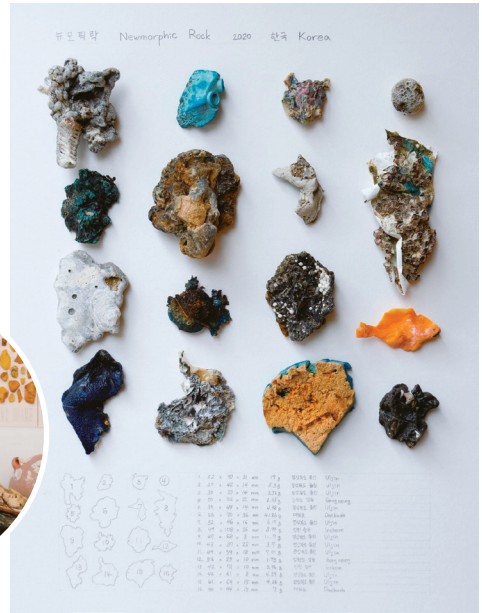
▼ 앨버트로스 새와 교감하는 조던의 모습



▲ 조던(Jordan, Chris/미국/1963~) **미드웨이: 자이어에서 온 메시지**(사진/크기 미상/2009년) 태평양에 위치한 미드웨이섬은 앨버트로스 새의 최대 서식지이다. 그러나 수많은 새가 북태평양 환류인 자이어를 따라 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는다. 조던은 인간이 버린 폐기물 때문에 죽어 가는 앨버트로스를 사진에 담아 슬픔을 표현하는 한편 생태환경의 훼손에 경종을 울린다.



▲ 플라스틱 암석을 소개하는 장한나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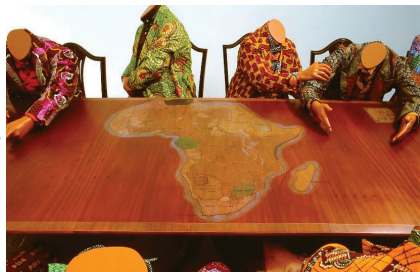
▲ 장한나(한국/1988~) **뉴모픽 록**(수집된 플라스틱 암석/가변 크기/2020년) 오늘날 매일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자연과 뒤섞여 새로운 암석이 생겨났다. 작가는 우리나라 해변을 돌아다니며 '플라스티글로머레이트(plastiglomerate)'라 불리는 플라스틱 암석을 채집하여 발견 시기, 크기, 무게 등의 정보와 함께 제시한다.

## 문화적·역사적 관계 맺기: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적 상호 관계에 주목하다

오늘날의 미술은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삶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문화적 차이와 다양한 관점 속에서 어떻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특히 여러 문화권에서 성장한 예술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선입견과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있다.



▲ <아프리카 쟁탈전>을 제작한 작가 쇼니바레의 모습



▲ 쇼니바레(Shonibare, Yinka/영국-나이지리아/1962~) **아프리카 쟁탈전**(14개의 마네킹, 의자, 탁자, 터치 왁스 프린트 천/132×488×280cm/2003년) 영국에서 태어난 나이지리아 혈통의 예술가 쇼니바레는 1884~1885년에 아프리카 분할 점령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베를린 회의를 묘사했다. 마네킹은 당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한 유럽의 14개 강대국을 상징한다.



▲ 티라바니자(Tiravanija, Rirkrit/태국-미국/1961~) **누가 빨강, 노랑, 초록을 두려워하라**(음식 만들기, 함께 먹기, 벽화 그리기 등 퍼포먼스/워싱턴DC 허시훈 미술관/2019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태국, 에티오피아, 캐나다 등에서 자란 티라바니자는 음식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으며 일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열린 토론을 하며 관계를 맺는 행위 예술을 진행한다. 빨강, 노랑, 초록은 태국 전통 음식인 카레의 색에서 따온 것이다.

→ 경계를 넘어: 참여하고 체험하는 장을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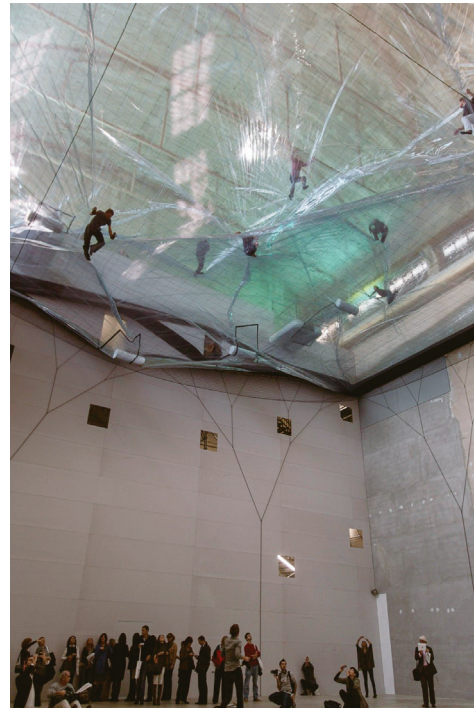
동시대 미술은 예술과 일상, 자연과 인공, 안과 밖의 경계를 넘어 관람자가 직접 참여하며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술 공학을 활용한 인공 자연을 창조하고 예술과 융합한 놀이와 휴식을 유도한다.



▲ 원경에서 본 <폭포>의 모습이다. 감상하는 사람의 위치 또한 작품을 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 엘리야손(Eliasson, Olafur/덴마크/1967~) 폭포(크레인 타워, 펌프 시스템, 스테인리스강, 물, 호스 등/높이 42m/2016년) 베르사유 공전 정원에 약 5개월 동안 설치하였던 인공 폭포이다. 날씨와 빛에 따라 폭포수와 주변 환경이 섬세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 사라세노(Saraceno, Tomas/아르헨티나/1973~) 시공간 거품 위에서(3단계의 투명 막, 유동적 구조물/가변 크기/2012년) 미술관 천장에 투명 필름 재료로 부드러운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객들이 공중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설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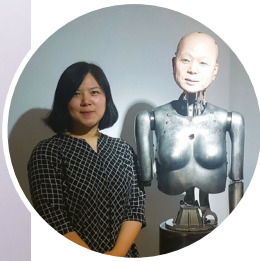
◀ 플렌사(Plensa, Jaume/미국/1973~) 크라운 분수대(LED 디스플레이, 유리벽돌, 분수 장치/높이 15m/2004년) 시카고 밀레니얼 파크에 공공 미술로 설치한 분수대이다. 시카고 시민 천 명의 얼굴을 LED 화면에 담았다.

→ 인간과 기계의 협업: 테크놀로지와 함께 포스트휴먼의 미래를 탐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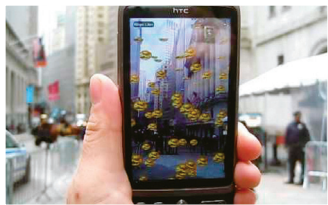
21세기에 급속도로 발전한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 학습에서 거대 언어 생성 모델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예술가들은 기계와 협업하여 인간, 예술, 사회를 폭넓게 탐구한다.



▼ 전시된 작품과 함께 서 있는 노진아 작가



▲ 노진아(한국/1975~) 나의 기계 엄마(인터랙티브 로봇틱스, 혼합 재료/180×60×50cm/2019년) 얼굴 표정 데이터를 학습하여 관객의 표정과 제스처를 그대로 흉내 내는 로봇이다. 작가는 본인의 엄마를 모델로 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인간의 감정은 본능적으로 타고나지만 오랜 기간 사회적 학습으로 형성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어쩌면 모성 역시 사회화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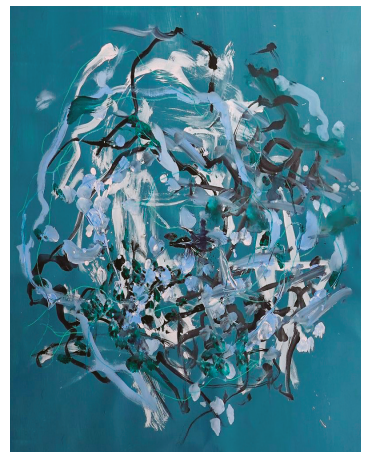
◀ 휴대전화로 증강 현실을 활용하여 시위를 벌이는 장면



▲ 스카릭(Skwarek, Mark/미국/1977~) AR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증강 현실/2011년/스크린샷) 미국 뉴욕의 경계를 대표하는 구역인 월 스트리트에서 2011년 금융 기관의 부도덕성에 항의하는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현장 시위가 금지되자 스카릭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매체인 증강 현실(AR)을 사용하여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청수권 작가의 모습



▲ 청수권(Chung, Sougwen/중국→캐나다/1985~) 인공물 No. 8(캔버스에 다양한 물감/111.7×84cm/2021년) 그림 그리는 손의 움직임을 학습한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창작한 작품이다. 화가이자 행위 예술가, 미디어 아티스트인 작가는 자신이 개발한 드로잉 로봇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작품을 만든다.